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이번 주 목요일(10/18) 저녁 8시 교척개정위원회로 모입니다.
- 오늘 친교 시간에 독감예방 접종합니다.
- 교우 동정
 - 임대영 집사님 부친 임덕기 집사님께서 지난 7일(주) 새벽 소천받으셨습니다. 임대영 집사님은 7일 저녁 출국하셔서 9일 발인예배 마쳤습니다. 향년 92세이셨고 영락교회 안수집사로 섬기셨습니다. 유가족께 주님의 위로가 더욱 함께 하셔서 잠시 헤어진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새가정 환영합니다.
 - 이석형 / 이예다
55 Bank St. Apt 1408, White Plains, NY 10606
(650) 521-6364 / (650) 823-1224
 - 최은정
25 Sutton Pl., Pleasantville, NY 10570
(917) 842-8270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10월 안내: 하영미 집사

다음 주 기도: 최경자 집사 (시 104:1-9, 24, 35c)

이번 주 친교: 이현주 집사, 최경자 집사

다음 주 친교: 이영순 권사, 강승연 자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교사에배

<오전10시> 인도자: **Edwin Kim** 전도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황인선 사모
 봉헌찬송 ----- “좋으신 하나님” -----다함께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롬 (Rom.) 1:17; 3:21-26; 12:1-2** ----- 이민영 목사
 설교(Sermon)-----“**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민영 목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다함께

주일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입례찬송 (Opening Hymn) -----1장 (통1장) -----다함께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다함께
 *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Hymn) -----446장 (통500장) “주 음성 외에는”-----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시 (Psalm) 22:1-15----- 이현주 집사
 찬양(Choir) ----- “주의 은혜로”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롬 (Rom.) 1:17; 3:21-26; 12:1-2** -----인도자
 인사 및 광고(Greetings & Announcements)-----인도자
 설교(Sermon)-----“**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민영 목사
 * 찬송(Hymn) -----453장 (통506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지난 주 주일 설교 요약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롬 1:17; 3:19-28)

복음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전하는 뉴스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 소식을 들어야 일어난 일이 자기의 현실이 되어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여전히 심판을 두려워하며 죄 가운데 사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이 남의 일이 될 뿐입니다. 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니다.

복음은 물론 예수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얻게 된 소식을 의미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뤄진 일이라서 기쁜 소식입니다. 보내신 분의 소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나타났지만 바울은 그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선포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입니다. 불법과 경건치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합니다(1:18). 그러나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를” 의롭게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의 심판입니다. 죄를 간과하는 것은 불의이지만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니다.

의로움이란 우리 자신의 무죄와 유죄의 개념을 넘어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롬 5:1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자고 권면합니다. 복음에는 우리와의 관계에 온전히 헌신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니다. 남의 자식의 잘못은 별로 마음 쓰지 않고 간과하는 법입니다. 계약 관계에서는 이용가치만 있으면 상대방의 잘못에 크게 괄념치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은 다릅니다. 언약을 맺은 사람은 다릅니다. 언약이란 행동과 조건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주고 받는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은 그와 언약을 맺은 자기 자신의 명예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훼손합니다. 별로 마음 쓰지 않고 남의 자식 잘못을 눈감아 주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완전히 의롭게 하시려는 관계에의 헌신이 복음에 나타났습니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그 관계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습니다. 용서받고 천국갈 수 있게 되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해치는 일일 뿐 아니라, 그 믿음조차 진실한 것인지 의심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내가 천국간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과 긍휼을 알고 신뢰하며 그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심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께서 죽으신 일을 의로운 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사 53:10,11).

우리를 위한 당한 고난을 수고로 여기지 않으시고 의로운 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 짐을 지시고 우리 명예를 매신 일이 어찌 쉽고 가볍겠습니까만 의로운 일로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예가 쉽고 짐이 가벼운 이유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배운다면, 주님을 위해 우리가 받는 어려움과 행하는 수고는 우리의 의로움이 됩니다. 쉽고 가볍습니다. 주님과 함께 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운 명예와 짐이기 때문입니다.